

역사진보위에 억압받고 서야 할 노동자

노동특집

노동자 정치세력화 어디까지 왔나 — 그방향과 진로모색

지난 2월이다. 실내장식업을 하는 친구에게서 자기 회사에서 2억짜리 공사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원래 인테리어라는 분야에 문외한인 나로서는 대단한 공사를 맡은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공사 계약금 전액을 보니 그게 아니었다. 어느 부자집 불탄집보다 2억대 공사였던 것이다.

부친으로 알려진 평창동에 위치한 그 집 공사 내역을 꼼꼼히 뜯어보면, 허를 때루지 않을 수 없다. 지하실에는 요새 흔치 않는 노대 연습실이 2개나 되고, 여기 들어가는 기자재도 일본의 유명 전자 메이커가 발매하는 최신 모델이다. 거실과 방 사이에는 글라스 블록이라는 특수 벽돌을 이용한 벽으로 그윽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문은 침대에 누워서 리모콘 하나로 여닫을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 이른바 첨단 과학이 이룩한 온갖 소재를 총동원한 불탄집인 것이다.

안락의자에 파묻혀 비디오를 시청하는 일이 주된 취미중에 하나라는 그 집 부인이 비디오를 시청하는 이유도 납득된다. 스토리 전개가 그 부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스킨에 비치는 집안 장식을 눈여겨 보는 것, 그게 바로 그 부인의 주된 관심사다. 이쯤되면 이번 공사로 비디오에 나오는 외국 인테리어를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그 부인의 취미에 대해서 지비할 것까지는 없다. 또 내돈 가지고 내 기분 내는데 무슨 상관이고 한다면, 소유의 자유가 거의 무제한하다시피 보장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할 말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선을 분배의 문제로 돌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2억이란 돈이 가진 자들에게는 별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어디? 월 100만원짜리 노동자가 20년을 단 한 톨도 쓰지 않고 몽땅 다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2억이다.

이렇게 92년의 봄이 가진 자에게는 2억의 공사비로 불탄집을 하는 기쁨이었겠지만, 노동자들

에게 30%나 치솟는 전세값 격으로 다가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2천5백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8백만 농민을 비롯한 4천만 민중들이 겪어야 하는 이 시대 상황의 슬픈 메타포다.

이처럼 왜곡된 분배구조가 개선될 전망이 현재로서는 없다. 최근 들어서면서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보수세력 일색으로 국회의 관세가 결정하자 현 정권과 자본측은 87년 이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되기 시작한 분배구조를 옛날의 열악한 구조로 되돌려 놓기 위해 전면적인 국면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정부에서 강요하는 총액임금제다. 전 노조의 발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물가는 33%나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5%만 올리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경찰을 투입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가한 채찍임금제라는 것만 구경만 하라는 소리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와 자본의 총액임금제라는 동맹을 자임해 왔던 노조조차 투쟁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액임금제를 통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옥죄기 전술이 전면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태다. 전정권 발빠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물가는 33%나 올랐다. 그런데도 정부는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5%만 올리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하면 무조건 경찰을 투입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협박도 잊지 않는다. 이것은 노동자에게 가한 채찍임금제라는 것만 구경만 하라는 소리다. 상황이 이쯤되자 정부와 자본의 총액임금제라는 동맹을 자임해 왔던 노조조차 투쟁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기록권을 수호하려는 지배계급의 완강한 탄압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단결권·정치참여 등 제약, 경제투쟁 넘어 정치세력화 요구돼 갈라진 노동운동세력 단결과 대중 지지기반 확대가 과제

체념인 것이다. 이처럼 역사의 진보를 지향하는 정치활동은 국가권력으로부터는 억압에 따른 탄압을 강요당해야 하고, 일반 대중으로부터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현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투쟁을 벌여왔고, 그 투쟁의 결과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1945년 이후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했던 남한 노동당은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철저한 탄압으로 꺾일당했고,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형성된 대중의 피해의식에 편승하여 광충처럼 휘둘러진 매카시 선동은 진보적인 정치 활동의 기반을 송두리채 갖아버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른바 레드 콤플렉스라는 노골적이고 집단적인 기괴 증세가 형성되고, 이 레드 콤플렉스는 오늘날까지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거나 수용하는데 주요한 정서적 방해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으로 기선을 제압하며 정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또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 뿌리 뽑으려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인 것이다.

이런 상황은 1959년 진보당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꿈꾸는 것조차 생명을 내건 모험일 수밖에 없게 했다. 그후 한국의 정치는 소수 지배계급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억압과 수탈, 그리고 통제만 강요당해 온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은 정치권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했다. 이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이른바 정치 불신 혹은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정치활동은 기록권을 수호하려는 권력에 의해 탄압을 강요당해 왔다



1992 5 M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3 24 25 26 27 28 29 30 31	24 25 26 27 28 29 30 31	25 26 27 28 29 30 31	26 27 28 29 30 31	27 28 29 30 31	28 29 30 31
29 30 31	30 31	31				

지구에 지하인들이 살고 있다!

지하 2000m에 지하인들이 살고 있다. 그 지하인들은 태양의 중심에서 분출되는 '뉴트리노'라는 미세한 입자를 잡아내고 있다. 우주의 질서에 종속되어 있는 지구의 내일을 점치기 위해 점성가의 팔랑이를 흔드는 대신 땅 속에 연구소를 차려놓은 것이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내일을 점치는 팔랑이도 없다. 우리에게 오직 젊음이 있을 뿐이다. 젊음은 예민하고 섬세하며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소와 같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젊음의 연구소에서 미세하게 지나가는 희망의 빛을 잡아낸다. 내일을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기 위해!

캠퍼스의 5월은 지하 2000m에서 태양의 중심을 바라보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입니다.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생활을 알리기 위해 현대가 여러분께 드리는 문화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도 있으면 행사 전 25일 전까지 현대문화(서울 종로구 경복궁 140-2, 전화 746-3347)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